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간의 관계

하나선* · 한금선** · 최 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간호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지속적인 자아발전을 꾀하도록 하며, 보건의료체제내의 모든 간호상황에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과학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술을 가진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최, 1986). 특히, 간호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논리와 방법과 실제에 관한 이론교육과 이를 적용하는 실습교육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 간호가 하나의 과학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론으로 얻은 지식이 간호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간호교육에서의 임상실습의 비중이 강조되어야 한다(이, 1980). 그러나, 이러한 간호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임상실습에 대해 학생들이 회의를 느끼거나 흥미를 잃는 일이 많다고 지적되는데, 이는 이론과 이상을 추구하는 학교실습과 현실을 추구하는 임상실습 사이에서 오는 충격이라 볼 수 있다(김, 1981 ; 김, 1982). 임상실습은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실습 현장에 옮겨서 실제 간호 대상자에게 간호를 적용함으로써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적인 경험 사이의 차이로 심각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박, 1978).

또한 간호학생들은 실습전이나 실습중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등, 1988). 이러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적당하면 적절한 학습동기를 가져올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등, 1988). 즉, 개인의 적응능력에 비추어 그 정도가 높거나 빈도가 잦고 기간이 길면 부적응 상태가 되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일으키며, 불만과 실패감, 심한 불안과 긴장, 좌절과 우울등을 경험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기관의 손상, 조직의 변화, 호르몬 공급의 감소와 같은 내부반응을 야기시키고, 행동조절의 장애를 일으켜 신체적, 심리적 평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정신, 신체질환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Selye, 1985). 또한, 여러 가지 생활사건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상황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신체 및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축적이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되며, 여러증상들과 관련이 있음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왔다(Cohen, 1983 ; Delongis et al., 1982 ; Mitchell et al, 1983).

간호학생에게 있어서 임상실습은 스트레스 유발요인

* 서일대학 간호과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의 하나로 사료되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지지가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실습에 임하고 있는 2, 3, 4학년의 간호전문대학 및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시 느끼는 스트레스 반응 및 스트레스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교육과정 속에 스트레스 관리와 연관된 교과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스트레스 감소를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1) 연구문제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연구가설

- (1)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은 높을 것이다.
- (2) 간호학생의 정서중심 대처유형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은 높을 것이다.
- (3)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문제중심 대처유형보다 정서중심 대처유형의 이용정도가 높을 것이다.

3. 용어정의

1) 스트레스 지각

(1)이론적 정의

질병이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정서,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고유한 질병 경험을 의미한다(McDowell & Newell, 1987).

(2)조작적 정의

Levenstein(1993)이 개발한 스트레스 지각척도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대처유형

(1)이론적 정의

개인의 적응자원을 초과한 과잉 소모 또는 부담으로 평가되는 내,외적 요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다(Lazarus & Folk-

man, 1984).

(2)조작적 정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간호학생이 이용하게 되는 문제중심, 정서중심행위를 의미하며, Lazarus & Folkman(1984)이 개발하고 김정희, 이장호(1985)가 표준화한 도구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의 대처방법 이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스트레스 반응

(1)이론적 정의

임상실습과 관련되어 간호학생에게 스트레스 상태를 초래하거나 강화시키는 근원이나 원천이다.

(2)조작적 정의

심 등(1988)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최현영(199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

스트레스는 개인에 의해 지각되는 외적 및 내적 자극을 가리키며 이것은 감정을 일으키고 마침내는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생리적 변화를 야기시킨다(Tipowski, 1985). 스트레스의 정도는 생활사건 자체보다도 생활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Reiser, 1984). 이러한 생활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 즉 스트레스 지각은 개인의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체계에서 부과되는 환경적 자극과 개인의 내적 요구를 자신이 지각하는 상태로서 개인의 적응능력을 넘어서는 때 경험하는 현상이며, 그 반응은 적응적일 수도 있고, 부적응적일 수도 있다. 즉,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에서부터 심각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조직체들의 현상이다. 스트레스는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환경의 압력과 이 압력에 대처하는 인간의 반응을 표현한다. 각각의 개인은 스트레스를 인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준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강도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 자신만이 느끼는 것이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원 또한 다양해질 수 있다(조와 박, 1996)

Lazarus & Folkman(1984)에 의하면, 스트레스 상황

에 대한 개인의 지각,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제로 행동이 개인의 적응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때 평가란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관계에서 그 관계를 중재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하게 된 개인은 일차평가, 이차평가, 재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을 도모한다.

일차평가는 개인요인과 상황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일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들은 환경이 자신과 무관한 상황인가, 자신에게 이롭고 긍정적인 상황인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인가를 판단하고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다시 그것을 이미 피해를 입고 중대한 상실을 경험한 상황인가, 이직 피해나 상실은 없었으나 그러한 결과가 예측되며 위협을 주는 상황인가, 위협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원상태로 회복하거나 회복을 위한 도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판단하는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차평가는 “어떤 대처수단과 대책이 유용하고 적당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과정은 사건에 대한 일차평가 과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정서상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나 기술 및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력의 질과 범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처(coping)란 개인의 적응자원을 초과한다고 평가되는 어떤 내/외적 요구를 다스리기 위해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려는 노력이다(Lazarus & Folkman, 1984). Lazarus & Folkman(1984)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행하는 대처능력을 그 기능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는 문제중심 대처방법으로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든지 또는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에 작용하려는 노력으로 문제해결이나 환경간의 갈등적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것이고, 둘째는 정서중심 대처방법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자아와 상황의 긍정적 측면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이루어지는 대처행위를 말한다.

인지적 평가와 대처유형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변화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문제중심 대처를, 변화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이용하며,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이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Lazarus & Folkman, 1986). Spivack(1985)은 문제중심의 대처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정서상태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대응전략도 또한 적응을 돕는 좋은 방법이라 하였고 어떤 대처유형이 효과적인가는 시간에 따라 스트레스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효과적인 대처방법은 직면한 상황 즉, 스트레스에 따라 상태적으로 융통성있게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보고했다. Anderson(1977)은 스트레스의 지각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거나 보통인 사람은 각각 다른 대처유형을 사용하고, 문제지향적인 대처는 스트레스 지각 수준과 역상관계가 있으나 정서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 지각 수준과 순상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는 문제지향적 대처유형을 포기하고 정서지향적 대처를 사용한다고 보고 하였다.

대학생들은 특별히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의 생활로 변화되는 사회적 전환기일 뿐 아니라 자아인식, 주체성 확립, 이성교제, 인생의 목적과 기치된 설정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습 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경험해야 하므로 환자간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부족, 엄격한 행동규범 등과 관련된 간호학생으로서의 역할적응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더욱 많은 스트레스에 접하고 있다(Carter, 1982).

김정희와 이창호(1985)는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연구에서 인지세트가 부정적일수록 우울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울을 예방하거나 우울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지세트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대처와 우울의 관련성은 인지세트와 우울의 관련성보다는 적시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우울한 사람들의 대처행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윤진과 최정훈(1989)은 고교생과 대학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그 대처행동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에서 도피지향, 지면지향, 외면지향, 정동지향, 체념의 5가지 대처행동요인을 추출해 냈다. 그리고 정신건강 수준은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낮았고,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대처양식에 있어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도피지향, 외면지향과 같은 보다 소극적인 양식을 더 많이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실험하는 추세로, 김대영(1991)은 Meichenbaum의 스트레스 예방훈련과 Kubiak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대응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생에게 실시하였고, 김은경(1993)도 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2.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반응

간호가 하나의 과학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론으로 얻은 지식이 간호현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임상실습은 간호교육의 한 부분으로써 지적태도, 기술, 행동면을 자극하는 간호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며,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간호대상자에게 실제로 간호를 제공하는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 1989). 즉, 학생시절에 간호역할 수행이 잘 되어야만 간호사가 되었을 때 간호업무에 대한 불만족, 비능률 등 간호 실체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가 사전 해소되어 보다 나은 질적 간호가 수행될 것이나(권, 1982).

모든 환경은 언제나 개체내에 직접, 간접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연속적으로 주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잘 모르거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이나 역할에 처했을 때 생겨난다(김, 1982). 간호학생에 있어서 실습은 익숙하고 친근감을 갖고 있는 학교생활에서 낯설은 미지의 세계로 옮기는 일이 되며, 이론과 이상을 추구하는 학교생활에서 실습과 현실이 위주가 되는 임상실습에 부딪힐 때 충격이 올 수 있으며, 기대에 어긋나는 실습의 경험으로 위축 내지 좌절하기도 한다(김, 1981)고 한다.

김주희(1982)는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전에는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많이 나타냈고, 임상실습 경험 후에는 간호기술과 지식의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많이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박현옥(1982)은 간호학생들이 실습환경, 실습내용, 실습계획과 실습평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였고, 김등(1988)은 간호학생들의 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 실태조사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9개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간호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습시에 접하게 되는 인간관계, 실습환경, 환자에 대한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화연(1984)은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 중 '간호활동'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가 가장 적은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최현영(1991)은 과제물과 관련된 요인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으며, 간호사, 수업과 실습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호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을 파악하고 그와 연관된 스트레스 지각정도 및 대처유형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정도,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소재한 3개의 전문대학생 212명과 2개의 4년제대학에 재학중인 108명의 2, 3, 4학년의 간호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 스트레스 지각

최근 1주간의 스트레스 지각을 평가할 수 있는 스트레스 지각 척도로, Levenstein등(1993)이 정신생리 질환자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총 30문항의 도구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느끼는 상태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 대처유형

Lazarus & Folkman(1984)의 척도를 김정희, 이장호(1988)가 표준화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6 문항으로, 문제중심 대처유형 20문항과 정서중심 대처유형 20문항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였고, 각 문항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다'(0점)에서 '아주 많이 사용한다'(3점)까지의 4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처유형의 이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3) 스트레스 반응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등(1988)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최현영(1991)이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이 도구는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부합되지 않는 한 문항을 삭제하여 59문항을 사용하였고, 구성내용은 실습환경과 관련된 13문항, 환자와 관련된 8문항, 수업과 관련된 5문항, 간호사의 관련된 13문항, 과제물과 관련된 3문항, 인간관계와 관련된 8문항, 실습지도·평가와 관련된 3문항, 집담회와 관련된 3문항,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1점)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심하게 느낀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사용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배부하여 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였는데, 총 332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12부를 제외한 320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C용 SAS package를 이용하여 전산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은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과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 스트레스 반응과 대처유형간의 관계,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유형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학년, 학력, 종교, 현재 신체적 건강상태, 입학동기, 간호학전공에 대한 만족도,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연령은 20세 미만이 17명(5.3%)이었고, 20~21세가 178명(55.7%)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22~23세가 109명(34%), 24세 이상이 16명(5%)이었다.

학년은 2학년이 106명(33.1%), 3학년이 146명(45.6%), 4학년이 68명(21.3%)이었고, 학력은 전문대재학중이 212명(66.2%), 4년제대학 재학중이 108명(33.8%)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146명(4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천주교가 30명(9.4%), 불교가 27명(8.4%), 무종교가 109명(34.1%), 기타 8명(2.5%)이었다.

현재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은편이 162명(50.6%), 보통이다가 142명(44.4%), 나쁜편이 16명(5.0%)으로 나타났다. 입학동기는 취직이 114명(35.6%), 석성인 67명(20.9%), 봉사자 28명(8.8%), 유학 및 교수희망이 10명(3.1%), 타인의 권고가 56명(17.5%), 간호사상에 감동이 3명(0.9%), 기타가 42명(13.1%)이었다.

간호학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86명(5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제 그렇지 않다 118명(36.9%), 불만족한다가 16명(5.0%)이었고,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99명(30.9%), 그제 그렇지 않다 159명(4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한다가 62명(19.4%)이었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

대상자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파악한 결과, 스트레스 지각 정도는 평균 2.55점으로 최소 1.3점에서 최대 3.7점까지의 범위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대처유형 이용정도에서 문제중심 대처유형은 최소 0.40점에서 최대 2.50점까지로 나타났고, 평균 1.61점이었다. 정서중심 대처유형은 최소 0.45점에서 최대 2.60점까지로 평균 1.37점을 나타내어 문제중심 대처유형의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체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최소 2.61점에서 최대 4.77점이었으며,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스트레스 반응은 실습환경에서의 평균이 3.47점, 환자에서의 평균이 3.39점, 수업과의 관계에서는 평균 3.81점, 산호사에서는 평균 3.97점, 과제물에서는 평균 3.98점, 인간관계에서는 평균 3.88점, 실습지도와 평가에서는 평균 3.88점, 집담회에서는 평균 3.63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평균 3.62점으로 나타나 과제물로 인한 스트레스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사, 인간관계, 실습지도와 평가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검증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1가설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은 높을 것이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지각정도와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해 본 결과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과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여($r=0.23$, $p=0.0001$),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표 1).

〈표 1〉 스트레스 지각과 스트레스 반응간의 상관관계

N=320

	스트레스 반응(r)
스트레스지각	0.23 ($p=0.0001$)

2) 제2가설

“간호학생의 정서중심 대처유형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은 높을 것이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서중심 대처유형과 스트레스 반응간의 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해 본 결과 간호학생의 정서중심 대처유형과 스트레스 반응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여($r=0.22$, $p=0.$

0001),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표 2).

〈표 2〉 정서중심 대처유형과 스트레스 반응간의 상관관계

N=320

	문제중심 대처유형(r)	정서중심 대처유형(r)
스트레스 반응	0.05 ($p=0.341$)	0.22 ($p=0.0001$)

3) 제3가설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문제중심 대처유형보다 정서중심 대처유형의 이용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스트레스 지각정도와 대처유형간의 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해 본 결과,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과 정서중심 대처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고($r=0.13$, $p=0.020$), 문제중심 대처유형과는 유의한 역상관을 보여($r=-0.13$, $p=0.015$) 제3가설 역시 지지되었다(표 3).

〈표 3〉 스트레스 지각정도와 대처유형 이용간의 상관관계

N=320

	대	처	유	형
	문제중심(r)	정서중심(r)		
스트레스 지각정도	-0.13 ($p=0.015$)	0.13 ($p=0.020$)		

4. 추가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처유형과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처유형 이용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유형의 이용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로 분석한 결과, 문제중심 대처유형에 있어서는 실습에 대한 만족도($F=3.17$, $p=0.043$)에 따라 정서중심 대처유형에 있어서는 학력($F=3.91$, $p=0.04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즉, 실습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그쳐 그렇지나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문제중심 대처유형 이용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4년제대학 재학중인 대상자가 전문대학재학중인 대상자보다 정서중심 대처유형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처유형 이용점도와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

N=320

특 성	구 분	문 제 중 심				정 서 중 심				스트레스반응			
		M	SD	F값	p	M	SD	F값	p	M	SD	F값	p
연 령	20세 미만	1.46	0.47			1.31	0.33			3.75	0.46		
	20~21세	1.61	0.37			1.37	0.32			3.73	0.40		
	22~23세	1.62	0.40			1.38	0.36			3.76	0.38		
	24세 이상	1.71	0.36	1.14	0.332	1.30	0.38	0.41	0.748	3.62	0.41	0.57	0.636
학 년	2학년	1.59	0.43			1.34	0.30			3.65	0.43		
	3학년	1.61	0.32			1.36	0.32			3.73	0.35		
	4학년	1.64	0.43	0.28	0.754	1.41	0.41	0.77	0.462	3.88	0.40	6.93**	0.001
학 력	전문대재학중	1.61	0.39			1.34	0.32			3.66	0.40		
	4년제대학재학중	1.59	0.38	0.14	0.713	1.42	0.37	3.91*	0.048	3.87	0.36	20.79***	0.0001
종 교	기독교	1.64	0.38			1.37	0.34			3.72	0.40		
	천주교	1.51	0.43			1.32	0.35			3.59	0.39		
	불교	1.58	0.37			1.42	0.37			3.81	0.37		
	무종교	1.62	0.39			1.35	0.33			3.78	0.38		
	기타	1.41	0.29	1.23	0.296	1.47	0.26	0.55	0.702	3.73	0.55	1.48	0.208
현재신체적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은편	1.64	0.37			1.38	0.32			3.72	0.41		
	건강상태가 보통	1.57	0.39			1.33	0.34			3.75	0.38		
	건강상태가 나쁜편	1.67	0.48	1.60	0.203	1.44	0.50	1.16	0.315	3.72	0.40	0.14	0.872
입학동기	취직	1.59	0.38			1.38	0.36			3.77	0.38		
	격성	1.60	0.35			1.38	0.31			3.78	0.41		
	봉사	1.75	0.44			1.39	0.35			3.67	0.45		
	유학및 교수희망	1.75	0.35			1.43	0.42			4.03	0.26		
	타인의 권고	1.54	0.43			1.38	0.34			3.66	0.41		
	간호사상에 감동	1.86	0.30			1.16	0.10			3.75	0.36		
	기타	1.63	0.35	1.25	0.282	1.27	0.28	0.91	0.484	3.65	0.36	1.87	0.085
간호학전공 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1.64	0.36			1.34	0.32			3.73	0.36		
	그저 그렇다	1.54	0.42			1.39	0.34			3.71	0.44		
	불만족한다	1.70	0.31	2.90	0.056	1.49	0.43	1.89	0.152	3.94	0.43	2.22	0.110
실습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1.67	0.36			1.33	0.32			3.65	0.41		
	그저 그렇다	1.55	0.36			1.38	0.32			3.78	0.38		
	불만족한다	1.66	0.46	3.17*	0.043	1.38	0.40	0.80	0.452	3.77	0.41	3.42*	0.034

*P<0.05

**P<0.01

***P<0.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로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반응은 학년($F=6.93$, $p=0.001$)과 학력($F=20.79$, $p=0.0001$), 실습에 대한 만족도($F=3.42$, $p=0.03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즉,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4학년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대학 재학 중인 대상자가 실습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 만족도에 대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해석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을 각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과제물에서의 스트레스(3.9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호사에서의 스트레스(3.97),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3.88), 실습지도와 평가에서의 스트레스(3.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최현영(1991)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과제물에서의 스트레스(4.29), 간호사에서의 스트레스(4.15), 수업과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4.15),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4.03)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제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과 간호사,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점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제물, 간호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과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는 다르지만 정신신체 장애자들의 신체증상의 심각도와 정신적 고통의 심한 정도는 스트레스 지각과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고경봉(1988)의 연구결과, 소화성궤양환자의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상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이평숙과 한금선(1996)의 연구결과, 당뇨병 환자의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이용미(1997)의 연구결과, 간호사의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조금숙(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간호학생의 정서중심 대처유형과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정서중심 대처유형과 스트레스 반응간에는 순상관관계의 경향을 보여 정서중심 대처유형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간호사의 스트레스 증상정도가 높을수록 문제중심 대처유형보다는 정서중심 대처유형을 많이 이용한다는 조금숙(1997)의 연구결과와 소화성궤양환자의 경우 정서중심의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이와 한, 1996), 당뇨병 환자의 스트레스 반응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용미(1997)의 연구결과, 우울환자의 경우 문제중심의 대처유형보다는 정서중심 대처유형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김정희(1987)의 연구결과, 정신과 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중심의 대처유형을 사용한다는 엄미사(1992), 김은하(1991)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한편, 입원환자와 혈액투석환자,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족, 폐제트 증후군 환자, 혈액투석 환자 배우자, 고혈압 및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연구한 박호숙(1993), 원삼순(1993), 윤성림(1988), 이춘원(1984), 전시자(1986), 지영숙(1987), Jalowiec & Powers(1981) 등의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를 정서중심 대처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문제중심 대처유형이 정서중심 대처유형보다 더 건강한 행위이고

심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문제중심 대처유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문제중심 대처유형이 정서중심 대처유형보다 더 좋은 적응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Jalowiec & Powers, 1981; Lazarus & Folkman, 1984)에 부합된다. 그러나, Sidle 등(1969)은 적응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며, 대처유형 자체를 좋고, 나쁜 방법이라고 결정짓기보다는 적응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처유형을 사용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문제중심 대처유형보다 정서중심 대처유형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는 문제지향적 대처유형보다 정서지향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임동명(1991)의 연구결과와 Tomaka(1993) 등의 위협과 도전평가 유형과 대처유형에 따른 주관적, 생리적, 행동적 증상의 효과 연구에서 주관적인 스트레스 지각이 높을수록 도전적인 평가보다는 위협적인 평가유형을 많이 이용한다는 연구결과, 소화성궤양환자의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중심의 대처유형을 보인다는 이평숙과 한금선(1996)의 연구결과, 당뇨병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중심의 대처유형을 이용한다는 이용미(1997)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2개의 4년제대학과 3개의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간호학생(2, 3, 4학년) 320명이었고, 자료수집기간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였다.

연구도구로는 스트레스 지각정도는 Levenstein(1993)이 개발한 스트레스 지각정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였고, 대처유형은 Lazarus & Folkman(1984)의 대처방법척도를 김정희, 이장호(1985)가 표준화한 척도를, 스트레스 반응은 최현영(1991)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분석은 SAS를 이용하여 산술평균, 표준

편차,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NOVA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는 최소 1.3점에서 최대 3.7점까지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2.55점이었다.
2. 본 연구 대상자의 대처유형 이용정도는 문제중심 대처유형은 최소 0.40점에서 최대 2.50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61점이었다. 정서중심 대처유형은 최소 0.45점에서 최대 2.60점까지로 평균 1.37점으로 문제중심 대처유형의 이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3. 본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반응은 최소 2.61점에서 최대 4.77점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74점이었다.

각 영역별 스트레스 반응을 살펴본 결과, 과제물에서의 평균 3.98점, 간호사에서의 평균 3.97점, 인간관계에서의 평균 3.88점, 실습지도와 평가에서의 평균 3.88점, 수업과의 관계에서의 평균 3.81점, 집담회에서는 평균 3.63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평균 3.62점, 실습환경에서는 평균 3.47점, 환자에서는 평균 3.39점으로 나타나 과제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제1가설인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은 높을 것이다”는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과 스트레스 반응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여($r=0.23$, $p=0.0001$),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
5. 제2가설인 “간호학생의 정서중심 대처유형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은 높을 것이다”는 정서중심 대처유형과 스트레스 반응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여($r=0.22$, $p=0.0001$),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
6. 제3가설인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문제중심 대처유형 이용보다는 정서중심 대처유형의 이용정도가 높을 것이다”는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과 정서중심 대처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여($r=0.13$, $p=0.020$), 제3가설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은 높게 나타나고, 정서중심의 대처유형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은 높았으며,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유형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

호학생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스트레스 지각정도와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간호학생이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2.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2)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요인별 중재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을 경감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대처유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경봉 (1988). 정신신체장애 환자들의 스트레스 지각. 신경정신의학, 27(3), 916-923.
- 권경남 (1982). 간호전문대학생들의 임상실습현장에서 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실습의 내용빈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대영 (1991). 스트레스 대처훈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세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자 (1981). 현실충격. 대한간호, 20(4)
- 김은경 (1993). 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하 (1991). 정신과 환자 가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의 상관관계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은, 노상옥, 이정선, 이주미, 이주연, 정경미 (1988). 간호학생들의 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 실태조사. 연세간호 제 12호, 42-76.
- 김정희, 이장호 (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 7, 127-138.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주희 (1982).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대한간호, 11(2), 45-57.
- 박오장 (1978).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조사 연구. 월간간호, 2(6).
- 박현옥 (1982).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호숙 (1993).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족의 스트레스와 대응정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엄미사 (1992). 정신질환자 치료시 가족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산순 (1993). 혈액투석 환자 배우자의 스트레스와 대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성림 (1988). 베제트 증후군 환자의 스트레스와 대처 방법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진, 최정훈 (1989). 청년기의 정신건강문제와 그 대처행동양식. -고교 및 대학생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2(1), 16-35.
- 이숙사 (1980).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10(2), 41-51.
- 이숙자 (1989).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 및 통제위 성격과의 관계연구. 인천간호보건대학 논문집, 제7집, 5-19.
- 이용미 (1997). 당뇨병 환자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춘원 (1984). 혈액투석 요법을 받는 환자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평숙, 한금선 (1996). 소화성 궤양환자와 건강인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증상간의 비교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37(2), 117-126.
- 임동명 (1991). 지각된 스트레스와 상황평가가 대처행동방식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전시자 (1986). 혈액투석 환자의 스트레스와 대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화연 (1984).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금숙 (1997). 간호사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사회적 지지정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복희, 박영주 (1996). 스트레스측정의 방법론적, 기술적 고찰. 전남대학교간호과학논집 Vol 1.
- 지영숙 (1987). 입원환자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방법 및 통제위 성격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희 (1986). 산호선문식: 발전과 전망.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 최현영 (1991).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nderson, C. R. (1977). Locus of control, coping behaviors, and performance in a stress setting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446-451.
- Carter, E. W. (1982). Stress in Nursing Student ; Dispelling some of the Myth. Nursing Outlook, 30(4).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 (1982).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119-136.
- Jalowiec, A., Powers, H. (1981). Stress and coping in hypertensive and emergency room patients. Nursing Research, 30(1), 10-15.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 Co.
- Lazarus & Folkman (1986).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 571-579.
- Levenstein, C., Prantera, V., Varvo, M., Scribano, E., & Betro, C. (1993). Development of the perceived stress questionnaire : a new tool for psychosomatic research.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7(1), 19-32.

- Lipowski, Z. J. (1985). Psychosomatic medicine and liaison psychiatry. New York, Plenum Medical Book Co, 71-90.
- McDowell, L., & Newell, C. (1987). Measuring health : A guide to rating scale and questionnaire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Mitchell, R. E., Cronkite, R. C., & Moos, R. H. (1983).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443-448.
- Reiser, M. F. (1984). Mind, brain, body : toward a convergence of psychoanalysis and neurobiology. New York, Basic Books, 161-185.
- Selye, H. (1985).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he stress concept. In A. Monat & R. S. Lazarus (Eds.), Stress and coping : An anthology.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17-29.
- Sidle, A., Moos, R., Adams, J., & Cady, P. (1969). Development of a Coping Scale : A Preliminary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0.
- Spivack, G. and Shure, B. (1985).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Am. J. of Com. Psycho., 13, 226-243.
- Tomaka, J., Blascovich, J., Kelsey, R. M., & Leiten, C. L. (1993). Subjective,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effects of threat and challenge appraisal. Journal of Personality, 65(2), 248-260.

- Abstract -

Key concept : Nursing Students, Stress, Ways of Coping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Stress Response of Nursing Students

Ha, Na Sun* · Han, Kuem Sun** · Choi, Jung***

This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stress response in student nurses.

*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Korea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20 student nurses from two universities and three junior colleges located in Seou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8 to December 10, 1997 by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the perceived stress scale developed by Levenstein(1993), ways of coping scale developed by Lazarus & Folkman (1984), and the stress response scale developed by Choi(1991).

The data were analyzed by SAS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NOVA.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mean score for the level of perceived stress was 2.55.
2. The mean score for the level of problem oriented coping was 1.61 and the mean score for the level of emotional oriented coping was 1.37.
3. The mean score for the level of stress response was 3.74. Stress was classified into nine factors and the order of scoring for the most frequent was; assignments(3.98), as a nurse(3.97), interpersonal relationship(3.88).
4.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tress response revealed a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r=0.23$, $p=0.0001$).
5.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oriented coping and stress response revealed a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r=0.22$, $p=0.0001$).
6.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emotional oriented coping revealed a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r=0.13$, $p=0.020$).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level of perceived stress and ways of coping we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stress response of student nurses.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should be included in the development of a stress management program for student nurses.

Further research with an expanded area and subjects is recommended.